

창단 40주년 지역 극단 토박이, '굿 스테이지 페스티벌'

8~11월 창작극 세편 공연
 11~12일 '새는 앉는 곳마다 깃이...'
 10월 13~14일 '꽃이여 바람이여'
 11월 17~18일 '버스킹(king) 버스'

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은 사람을 '토박이'라 칭한다. 이들은 지역의 역사 그 자체인 동시에, '로컬리티의 미래'까지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되곤 한다.

지난 1983년 11월 창단 이래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해 온 극단 토박이가 '창단 40주년 굿 스테이지 페스티벌'을 연다. 이번 공연은 총 세 편의 창작극을 8월부터 11월까지 매월 한 편씩 선보이는 축제 형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오는 11일(오후 7시 30분)과 12일(오후 2시, 5시) 연극 '새는 앉는 곳마다 깃이 떨어진다'를 동구 민들레소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작품은 현대사의 질곡을 관통하며 한민족이 마주했던 '분단'과 '통일'의 문제를 조망화한다.

이야기는 평안도가 고향인 '이 노인'과 '서 노인'이 병실에서 만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앞서 입원해 있던 '이 노인'은 같은 지역 출신의 '서 노인'이 들어오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형사가 방문하면서 우연히 서 노인이 '비전향 장기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둘은 적개심을 갖기에 이른다. 한편으로 역사의 소용돌이라는 시대의 곡절을 계기로 두 노인은 서로의 상처를 돌아보게 된다.

작품은 1998년 초연된 후 부산, 대구 등에서 공연됐으며 '2000 과천세계마당극축제' 공식작품작 외에도, 전국민족극한마당 수상작으로 화제가 됐다. 송은정, 나창진 원작을 극단 토박이가 각색했으며 임해정, 김정훈, 임재민, 정수린 등이 무대에 오를 예정.

이어지는 10월 13일(오후 7시 30분), 14일(오후 2시, 5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꽃이여 바람이여'가 관객들을 맞는다. 'bravo my life'라는 부제로 펼쳐지는 무대는 낡고 오래된 '브라보 원룸 하우스'에서 펼쳐



'꽃이여 바람이여' 공연 모습.

<극단 토박이 제공>

쳐지는 갈등극 형식이다.

원톱에는 주인공 김찬식과 세입자 이봉숙, 강미남 그리고 공식생 변남호가 거주하고 있다. 이곳 거주자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살아간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김찬식은 골머리를 앓고, 음악인을 꿈꾸던 변남호는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생활한다. 이 봉숙과 강미남은 노인복지센터에 다니는 것이 유일한 일과. 저마다 처지는 다르더라도 나름 고통을 나누는 '이웃'의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던 어느날 강미남이 치매를 앓기 시작하며 갈등이 시작되는데...

작품은 인간성의 상실과 고통화 사회가 수반하는 문제들을 정면으로 겨냥한다. 아울러 계층 간의 갈등과 사회적 문제를 풀어가는 양태를 비유적으로 그려낸다.

끝으로 11월 17일(오후 7시 30분)과 18일(오후 2시, 5시)에는 오월극 '버스킹(king) 버스'가 준비돼

있다. 광주에 운행 중인 518번 시내버스를 소재로 5-18의 역사적 가치, 상징성, 용서와 화해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오월 연극을 표방하는 작품이다.

518번 시내버스의 운전수 '안 기사'는 운행 시간을 지키지 못해 하고 통보를 받는다. 간곡한 부탁 끝에 딱 하루 다시 기회를 얻은 안 기사는 굳은 결의로 승객들을 맞이한다. 버스에선 여고생, 할머니, 의문의 남자 등이 오르는데, 의문의 남자가 1980년 당시 계엄군이었던 사실을 밝히며 승객들과 마찰을 빚는다. 과연 518번 버스는 순항하고 안 기사는 무사히 복직할 수 있을까?

한편 극단 토박이는 그동안 '금희의 오월', '모란꽃', '마중', '오! 금남식당', '저승에 온 별' 등 다양한 오월극을 선보여 왔다.

무료 공연. 예약은 극단 토박이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최상현 작 '송학도'

부산-광주-서울 장애예술 페스티벌

광주문화재단, 김선환·전동민·이혜선 등 참여 교류전

7일 개막해 11일까지 열리는 2023 세계 장애인대회는 국내외 장애인단체의 교류와 소통, 배리어 프리(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조성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지구촌 대전환, 그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부산에서 열리며 전 세계 80개국 2000여 명이 참여한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풍년, 재단)이 세계장애인대회 연계행사 하나로 장애예술 교류전을 개최해 눈길을 끈다.

재단은 이번 대회에 장애예술인 창작공간을 운영하는 서울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과 공동 주최로 '장애예술 페스티벌: 부산-광주-서울 장애예술 교류전'을 마련한 것.

이번 전시회에는 부산, 서울, 광주 등에서 20여명의 작가가 참여하며 광주에서는 재단 장애예술인 창작센터 보듬 입주 작가 4명의 작품이 전시된다.

동양화가인 최상현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초대전 등 다수 기획전 및 그룹전 전시에 참여했으며, 이번 전시에는 '무릉 계곡', '천

불동 계곡' 등 5점을 출품한다. 동판의 질감과 색깔을 보고 물성의 매력에 빠져 동판화를 시작한 김선환 작가는 이번에 '무등산', '바다 풍경', '소싸움' 등 7점의 작품을 출품한다.

총 220회의 그룹 및 단체전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해온 서양화가 전동민은 '부산야경', '두바이야경', '홍콩 시내' 등 5점의 작품을 출품한다.

서양화가 이혜선은 2021-2022 남부부터 칼라페스티벌 참여 등 다양한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부산에서는 '느림의 일부' 등 5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황풍년 광주문화재단 대표는 "재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 국비 3억을 확보해 총 6억 5000만원 예산으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장애예술인 창작센터 '보듬' 공간 운영을 통한 레지던시 입주작가 지원 등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낭만주의 시대 대표작인 발레 '지젤' 공연 장면.

<발레STP협동조합 제공>

낭만주의 시대 최고 걸작 '지젤' 무대

ACC재단, 9월 8~9일 예술극장 극장2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작인 발레 '지젤'은 순박한 시골 소녀 지젤의 가슴 뭉클한 사랑이야기로 전 세계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 재단)은 오는 9월 8~9일 '지젤'이 ACC 예술극장 극장2 무대에 오른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작품은 ACC재단에서 추진하는 우수공연 초청 프로그램인 'ACC 초이스'의 세 번째 작품으로 공연되며, 특히 7개의 민간발레단(유니버설발레단, 서울발레시어터, 이원국발레단, SEO(서)발레단, 와이즈발레단, 김옥련발레단, 정형일발레크리에이티브)이 참여하는 '발레STP협동조합'에서 진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번 작품은 순수하고 맑은 지젤의 이야기를 담은 1막, 싸늘한 영혼이 돼 송고한 사랑을 표현하는 2막으로 진행된다. 특히 2막의 사랑하는 이에게 배신당한 슬픔을 가슴에 담은 율리들의 몸짓은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공중에 떠 있는 착각을 일으킨다.

ACC재단 관계자는 "ACC 초이스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우수 공연들을 선보이고 있다"며 "이번 작품 '지젤'은 민간발레단에서 최고의 기량을 가진 발레무용수들이 참여해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람료는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이며 8일부터 ACC 누리집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비밀의 언덕' 이지은 감독 초청 광주독립영화관, 11일 토크쇼

광주독립영화관(관장 한재섭, 이하 영화관)이 영화 '비밀의 언덕' GV(초청 토크쇼)를 오는 11일 오후 7시에 영화관에서 연다. 성장통을 앓는 소녀와 가족의 의미를 묻는 작품으로 '남매의 여름밤'의 감독 윤단비가 진행을 맡는다.



이지은 감독

행사에서는 지난달 12일 개봉한 '비밀의 언덕'의 이지은 감독이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 감독은 여태 'I am(2016)', '정리(2018)' 등 다수의 단편을 선보여왔지만 장편은 부재했다. 이번 GV는 이 감독이 처음으로 장편영화의 각본과 연출을 맡아 관객들과 만나는 자리다.



윤단비 감독

감독이 풍부한 초등학교 5학년 소녀 명은(문승아)의 부모님은 시장에서 젓갈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명은은 주눅들지 않고 반장선거에 나가 우여곡절 끝에 당선되지만, 시장에서 장사하는 부모님과 연관된 부끄러운 순간들을 문득 마주한다.

한편 작품은 영화관에서 오는 9일(오후 4시 50분) 감상할 수 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지역 원로 한국화가 양계남 별세

보성 출신 전 조선대 교수...의재 문하서 한국화 배워

지역 원로 한국화가인 월아(月娥) 양계남(사진) 전 조선대 교수가 지난 4일 별세했다. 향년 79세.

보성 출신인 양 교수는 의재 허백련 문하에서 한국화를 배웠으며 조선대 미술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오랫동안 조선대 미술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했으며 지난 2010년 정년퇴임했다.



특히 고인의 트레이드마크인 난꽃잎 문법은 무령왕비관의 초화(草花)형태의 관식(冠飾)을 양식화하고 한켠에 부채모양의 공간을 설정해 시승의 형상을 배치하는 설화적 요소를 도입했다.

평생을 독신으로 그림과 함께 살아온 고인은 정년퇴임을 기념해 자신의 호를 딴 월아미술상을 제정해 한국화를 전공한 후학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고인은 고교 시절부터 의재 허백련으로부터 사군자를 익혔으며 문기 넘치는 작품을 구사한 초기와 달리 70년대 후반부터는 전통 민예품의 장식을 화면에 도입하는 등 변형을 시도했다.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는 수묵화의 전통을 벗어나 색채 산수화에 전격했다. 2000년대 이후로는 채색산수와 함께 종교적 염원을 형상화하는 작업을 병행해왔다.

양계남의 회화의 특징은 동양 정신의 충실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자수를 모티브로 한 정교한 세밀묘사를 통해 한국적 문양과 색채에 깊이 탐닉했는데 특히 난꽃잎 문법이라는 독특한 문법을 구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독실한 가톨릭신자였던 양 교수는 한지에 붉은 색과 보라색, 푸른색과 녹색 바탕에 성작과 성체, 십자가 등을 배치해 이색적인 화면을 창출하기도 했다.

제자이며 한국화 회가인 박홍수 조선대 교수는 "선생님은 초창기에는 의재 계열 중의 작품을 했으며 이후에는 모던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채색을 했다"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천주교 신자이다 보니 성화와 관련한 모티브를 회화적으로 작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대 한국화 졸업생들로 이루어진 선목회를 중심으로 올해의 미술상을 제정해 제자들을 후원했다"며 "학부에도 매년 2~3명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전시회를 열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징크판넬시공



창호(삿시)교체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농막



옥상스틸방수



모던건설
MODERN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